

| 14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4011.57   | ↓ 코스닥       | 897.90   |
|                  | (-159.06) |             | (-20.47) |
| ↑ 금리 (미국 9년)     | 2.944     | ↓ 환율 (원·달러) | 1453.10  |
|                  | (+0.012)  |             | (-14.60) |



이재명 대통령(앞줄 왼쪽 두번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삼성 450조 등 재계 1000조 투자 화답

**한미협상 후속 회의**  
**李대통령, 재계 총수들 초청**  
**“기업이 이번 협상 핵심 주역**  
**경영 환경 차질 없도록 지원**  
**국내 균형발전 관심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이번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삼성 450조, 현대차그룹 125조원 등 1000조원이 넘는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지 않도록 해

달라며, 국내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기업이 장애 없이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미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누군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이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관세 협상을 담당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대미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며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를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

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대립적이지 않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社告



##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 (수) 오후 2~5시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기조강연: 유태준 한국피지컬협회장(마음AI 대표이사)  
강 연: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강 연: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  
강 연: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강 연: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참가신청: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문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o<sup>®</sup>

## 고환율·집값·물가 ‘3중고’ 금리인하 기대감 급속 냉각

정부 시장안정 의지 드러내  
추가 인하 보다 동결 명분 ↑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은 14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4.2원 오른 1471.1원에 출발한 뒤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한때 1474.9원까지 치솟았다. 장중에 1470원대 중반까지 치솟던 환율은 정부와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온 뒤에는 간신히 1450원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시장 안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2면에 계속>

16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으로 치솟는 가운데 집값 불안과 2%대 중반의 물가압력이 겹치면서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효율 향상, 대체 연료 전환, 친환경 장비 탑재 여부가 곧바로 운항 비용과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 규제 강화는 글로벌 해운·물류기업들의 ESG 요구와 맞물리며 조선업계 전반의 발주 전략과 기술 개발 방향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주요 화주사들은 신규 운송 계약에서 탄소 배출 수준을 핵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사·보험사 역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대출·보증 조건으로 반영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 m-커버스토리

## IMO 탄소세 도입 예고… K-조선에 새 기회

**조선업 친환경 가속화**  
**2028년 탄소세 규제 시행**  
**해운·물류사 전략 대전환**  
**국내 조선3사 수주 기대감**

국제 규제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압력이 커짐에 따라 조선업계의 친환경 선박 체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K-조선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기조가 맞물리며 친환경 선



챗GPT가 생성한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성장 전망 이미지.

박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조사기업 아카인브 마켓 리서치는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O는 2023년부터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제를 적용하고 연비가 낮은 선박에 운항속도를 줄이거나 에너지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8년부터 5000톤 이상 선박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 1톤당 최대 38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저탄소·무탄소연료 사용이 선박 운영의 기본 요건으로 자리 잡는 셈이다.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에너지

### 메트로 한줄뉴스



▲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할 일”  
▲김 총리, 한강버스 멈춤사고에 “안전성 재점검해야… 필요시 일시 중단”

/사진 뉴시스

▲이승만부터 노무현까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천건 추가 공개  
▲나경원 “李대통령·대장동 공범들 재산과 반한 청구권 가압류 하라”

▲“北, 동해안에 호위함 추가 배치… 한미연합훈련 대응 가능성”  
▲국힘, ‘내란청산 TF’ 설치에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공산국가식 속청”